

## 서문

### 식민지 문학과 모더니즘

길 혜 령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 관심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조이스는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 D. H. 로렌스(Lawrenc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와 함께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선구자로 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폴란드 출신인 콘래드를 제외한 다른 영국 작가와는 달리 아일랜드 출신이며, 특히 영국 지배하의 더블린이 그의 작품의 주된 모티브라는 사실은 20세기 후반 들어 그의 작품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조이스의 작품, 특히 『율리시스』(*Ulysses*)와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두드러지는 모더니즘적 기법이나 주제는 단순히 이전의 리얼리즘 소설과 구분되는 20세기 초반의 문학적 특성이라기보다 오히려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다중성이라는 21세기 문화적 현상을 예언적으로 투영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조이스 문학은 그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이 보여주는 양과 깊이는 문학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는 『제임스조이스저널』은 우리나라 영문학계에서 몇 되지 않는 단일작가 학술지의 하나로 당당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제임스조이스저널』은 격년 겨울호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세계 저명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함으로써 국제학술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이어 2017년 봄에 제7차 국제제임스조이스학술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영문판인 『제임스조이스저널』 23권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올해 26회제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제임스 조이스 학술회의는 ‘국제제임스조

이스심포지움(International James Joyce Symposium)과 ‘북미제임스조이스컨퍼런스’(North American James Joyce Conference)라는 명칭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매년 『율리시스』의 하루를 기념하는 6월 16일 ‘블룸스데이’(Bloomsday)를 전후로 하여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빅토리아 칼리지(Victoria College)에서 “디아스포라적 조이스”(Diasporic Joyc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에서도 몇몇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조이스연구에 대한 세계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 조이스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임스조이스저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다.

또한 『제임스조이스저널』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월 3주차 토요일에 진행되는 ‘독회’의 토론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자들의 조이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의 『피네간의 경야』 1권 5장과 7장 독회에 이어 3권 1장의 독회기록을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4월 29-30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Joycean Chaosmos”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제임스조이스학술대회의 이모저모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회원 동정 및 『제임스조이스저널』 창간 3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문도 같이 실었다.

글로벌화를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조이스에 대한 연구 활동은 조이스 문학이 피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상업화와 도시화의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피식민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의식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자한 조이스의 노력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현실 속에서 사라져가는 지역적 특수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이 시대의 노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윤희환은 「모더니티, 식민주의, 아이덴티티: 박태원의 구보와 제임스 조이스의 리틀 찬들러」(“Modernity, Colonialism, Identity: Park Taewon’s Kubo and James Joyce’s Little Chandler”)에서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공통성에 근거하여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와 조이스의 단편 「작은 구름」의 리틀 찬들러라는 인물을 비교한다. 더블린과 서울(경성)이라는 20세기 제국의 식민지 수도에서 피식민지인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논한다. 최석무는 이러한 억눌린 식민지의 삶에 대해 조이스가 ‘동화 다시 쓰기’라는 기법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한 편의 동화처럼 서술한다고 해석

한다. 「조이스의 전래동화 다시 쓰기: 「진흙」과 「신데렐라」」는 더블린의 노처녀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편 「진흙」이 마리아의 행동과 심리, 플롯, 반복적 패턴 등에 있어서 철저히 전래동화인 「신데렐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조이스의 ‘동화 다시 쓰기’ 기법을 분석한다.

더블린에 대한 조이스의 집착적 서사는 아일랜드의 모든 역사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피네건스 웨이크』에서 잘 드러난다. 민태운은 「물개성의 예술가 조이스: 『피네건스 웨이크』 제1권 제5장」에서 작가의 물개성과 상호텍스트적 글쓰기를 분석하며 『피네건스 웨이크』 5장을 통해서 본 조이스의 작가적 의도를 살펴본다. 김철수는 「바흐쥘의 크로노토프로 「애러비」 읽기」에서 조이스의 또 다른 단편 「애러비」의 주인공 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서술방식을 소설의 발생 및 발전 과정과 비교하여 논한다. 크로노토프(chronotope), 즉 ‘시공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서사시에서 장편소설로의 발전과정이 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서술방식의 변화를 통해 상징된다는 논지를 개진한다.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주제는 울프의 작품 『파도』에 대한 손일수의 「‘자연’스러운 성장: 『파도』와 성장소설」에서도 이어진다. 이전의 성장소설과 달리 자연의 순환적 리듬에 따른 불확정성과 우연성을 포함하는 성장소설로서 『파도』를 해석하며 영제국을 상징하는 주인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박은경은 「꽃잎 속 전갈, 잎새/벽의 달팽이: 버지니아 울프, 러시아 경계를 가로지르다」에서 러시아문학과 울프의 문학을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러시아 문학의 영국 모더니즘 문학에 미친 영향을 논한다.

피식민지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모더니즘적인 기법을 통해 보편성으로 승화하고자 한 조이스와 울프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글로컬화 시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영남대)